코로나19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 공부하고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했다. 차별, 불평등, 복지문제, 교육문제, 인권문제, 기아문제, 기후변화 등 뿌리깊게 박혀있었던 사회 문제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하는 기폭제가 되어주었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한 분야에만 치우쳐진 발전이 아닌 건강, 복지, 사회, 그리고 환경과 같이 다각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투자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의 부족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나 자원,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채 결점이 존재하도록 만든다. 전세계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정보 기반 시설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팬데믹 상황속에서 많은 국가들은 질병의 확산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공식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3.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전연령대에 복지를 제공하는 것

코로나19는 인간의 기대수명을 단축시켰고, 특히 소외된 집단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전염병은 보편적인 건강 회복과 건강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다분야 조직의 중요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구 통계와 역학 데이터의 수집이 불가피해졌다.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에 문제를 보여주기엔 짧은 시기이지만, 전세계적으로 건강을 향한 발전에 위협을 가했다. 전염병은 정말 많은 사망자수를 낳았는데,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기관지와 심장에 큰 후유증과 그에 따른 정신건강에 문제 등의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감염자에게 투여한 무분별한 항생제의 사용은 향균 내성을 증가시켰다.

건강 문제의 실질적인 발전은 아이들의 죽음을 끝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문의를 통한 출산을 통해 아이들의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낮췄으나 펜데믹 이후로 많은 국가에서 임신과 산모, 신생아, 아이와 청소년과 관련된 건강 서비스의 분열을 보고했다.

범유행 전에는 암이나 심장병, 당뇨, 만성 호흡기 질환과 비전염성의 질환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비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면서 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진다.

HIV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도 2019년까지 그 수가 줄었으나 아직 HIV와 관련된 시험과 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전세계 사람들이 존자해기에 줄어든 그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팬데믹 으로 인해 HIV 의료 서비스의 분열에 영향을 미쳤다. HIV뿐만 아니라 결핵도 마찬가지이다. 결핵 환자도 2019년까지 빠른 속도로 줄었으나 2020년에는 2019년과 비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급진적으로 늘어났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큰 폭으로 줄었다. 말라리아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데 코로나19의 발생은 전세계적으로 말라리아 환자를 줄이려는 전세계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싸움의 종결을 지연시키고 있어 추가적인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세계적인 자살율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코로나19의 발생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심리치료를 포함시켰다. 범유행속에서 증가한 알코올 섭취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둘 다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 반대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락다운으로 인해 도로의 이동량이 크게 줄어 사망률이 감소했다.

코로나19는 노인들과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난민들과 이민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가난한 생활 환경과 충분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이다. 또한 펜데믹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인 고립과 이동제한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없는 돈을 쓰다보니 더욱 궁핍해져 음식이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에 더 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난민이나 이민자들의 이미 고통받고 있던 생활과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코로나19 증상이 보여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며 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와 추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을 통한 전염병 확산의 제지는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 전염병이 어느정도 통제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신은 선진국들에게 제공되었고 개발도상국들에겐 거의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은 불평등의 감소와 기아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모든 사람들이 금전적인 고난 없이 필요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고 예방과 치료, 재활과 완화 치료와 같은 모든 범위의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코로나19의 지속은 이러한 체계가 약한 나라들과의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다. 많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범유행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의료 서비스를 유지한다.

의료 계열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전방에 직면해있어 인력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투입되었는데 이 때문에 특히 노동자 수가 부족한 국가의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제한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차별이나 전문 장비의 부족과 같은 코로나19의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었다.

코로나19 범유행의 실제 규모와 영향을 파악하는데에 있어서 주요 장애물은 데이터의 부족이다. 많지 않은 수의 국가들이 사망 등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없다. 펜데믹은 국가들로 하여금 데이터의 수집과 성, 나이 불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주민 등록 시스템을 하도록 도전하게 한다.

느낀점

3번 SGD를 읽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보험이나 비대면 약 처방, 코로나 검사와 같은 서비스가 어떤 나라에겐 일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임을 처음 알았다. 사회적 약자나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겐 코로나 감염 여부조차 아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약도 받을 수 있었기에 우리에겐 귀찮고 당연한 서비스가 누군가에겐 목숨이 걸린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필수적인 서비스들에 결함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이 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을 배웠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까지 서비스가 닿게 하려면 일단 그들과 관련된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도 않아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데이터를 수월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으면 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에드워드 제너의 뒤를 잇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발전이 늦었고 기후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쓰레기와 탄소배출 감소, 에너지 절약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민국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강대국들이 탄소 배출과 쓰레기 발생은 다 하고 있으면서 모든 국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 자체가 선진국들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으나 위 지문을 읽고 이러한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대한민국 정도면 선진국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